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 “헬러윈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우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국민들 방역 협조 당부



헬러윈 데이인 10월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가 헬러윈 데이 모임·행사를 매개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일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감염 위험 요인도 증가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31일 오후 정

### 신규확진자 네 자릿수 이어가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34% ↑

“일상 회복 따른 감염 위험 증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2061명으로 지난 28일(2111명)부터 나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 4차 유행은 7월7일부터 117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최근 일주일(10월 25~31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829명으로 전주 대비 약 34% 증가한 상황이다.

전 장관은 “내일(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단계의 이행계획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경남 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을 비롯해 권역별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헬러윈 데이를 계기로 확진자 규모 증가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밀집 지역과 다수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 순회단속’ 등 특별방역관리대책(10월27일~11월2일)과 함께 모임 자체 협조 캠페인을 시행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 회복 이행에 따른 개인간 접촉 확대와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그리고 동절기 밀폐환경 등 감염 위험 요인의 증가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에는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일상 공간에서 국민의 지속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전날까지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5.3%,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87.6%를 기록한 점을 들면서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전체 인구 대비 80% 이상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접종자 대상 당일 예약·접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각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접종계획 수립과 시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50대 이상 연령층, 기저질환자, 안센 백신 접종자까지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을 확대해 접종 효과를 높여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이와 함께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분석과 안전성 검토를 담당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를 11월 초부터 운영하겠다”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는 백신 관련 민간전문가 등을 추가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더욱 진전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현행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더욱 안정된 일상회복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국화꽃에서 한 컷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인 10월 31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만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국화꽃밭에서 가을 나들이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군 제공)

###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일주일 광주·전남 14명 형사입건

광주 11건·전남 22건 집계...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광주·전남에서는 스톱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간 관련 신고 33건이 접수됐고, 이 중 14명이 형사입건됐다.

10월31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스톱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일주일(10월21~27일)간 관련 신고는 광주 11건, 전남 2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 스톱킹처벌법 형사 입건자는 광주 6명, 전남 8명이다. 광주에선 A씨가 헤어질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수신통 걸었다가, 스톱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B씨에게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했다.

전남에선 헤어질 여자친구에게 2시간동안 30차례 가랑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B씨가 경찰에 의해 불특정 스톱킹처벌법 혐의로 입건됐다.

또 처음 보는 여성을 20여 분간 따라다니며 추근대던 C씨에게 피해 여성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긴급 응급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

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톱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주변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집 등지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넓게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

경찰은 피해자를 1366 등 보호시설에 연계해 피해 회복을 돕거나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스톱킹 범죄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으로 조처를 한 뒤 법원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에도 힘쓴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는 응급 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 조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청소년 수사 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톱킹 범죄 대응 방향을 두루 교육했다. 입법 취지에 따라 스톱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 ‘최후의 승자’는 KT

창단 첫 정규시즌 우승 쾌거

2021 정규시즌 왕좌의 주인은 KT 위즈였다. (관련기사 12면)

KT는 3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쏘 KBO 정규시즌 1위 결정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1-0으로 이겼다. 승리가 확정된 순간, 모든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뛰어 나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만끽했다.

정규시즌 우승이 결된 일전이었다. 시즌 144경기를 나란히 75승9무59패로 마무리한 KT와 삼성은 ‘진짜 1위’ 자리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최후의 승자는 KT다. 2015년 ‘10번째 구단’으로 1군에 데뷔한 이후 7시즌 만에 오른 왕좌다. 지난해 KT의 3대 사령탑으로 취임한 이강철 감독은 부임 2년 만에 팀을 정규시즌 챔피언으로 이끌었다.

물러설 수 없는 경기, 초반부터 KT 윌리엄 쿠에바스와 삼성 원태인이 초반부터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다. 쿠에바스는 7이닝 동안 1피안타 3볼넷 8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원태인도 KT를 상대로 5회까지 완벽한 피칭을 펼쳤다. 그러나 6회 단 한 번의 고비를 넘지 못했다.

8회부터 볼펜을 가동한 KT는 박시영(¼이닝 무실점)에 이어 김재윤(1¼이닝 무실점)으로 1점 차 승리를 지켰다. 창단 첫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여는 세이브였다.

삼성 원태인은 6이닝 2피안타 2볼넷 8탈삼진 1실점 비자책으로 잘 던지고도 패전의 멍에를 썼다. 뉴스



워킹레일





**요양원** 061)395-2580  
**주·야간보호** 061)394-0123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수시모집 (경력인 우대)

# 신세계 요양원

# 주·야간보호센터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교육지원청 앞)